10 24 자유언론실천선언
47주년 기념식

⊹

제27회 통일언론상
제33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시상식

개회선언

노동의례

제1부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7주년 기념식
- 내빈 소개
-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문' 낭독
- 인사말
- 기념사
- 격려사
- 자유언론실천선언 47주년 성명 낭독

제2부 제27회 통일언론상 시상식
- 심사경위 발표
- 대상 및 특별상 시상

제3부 제33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시상식
- 심사경위 발표
- 본상 및 특별상 시상

폐회 (기념촬영)

1부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7주년 기념식

10.24 자유언론실천 선언문 | 인사말 | 기념사 | 격려사 | 자유언론실천선언 47주년 성명

자유언론실천선언 (自由言論實踐宣言)

우리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처한 미증유(未曾有)의 난국(難局)을 극복(克服)할 수 있는 길이 언론(言論)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宣言)한다.

민주사회(民主社會)를 유지하고 자유국가(自由國家)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社會機能)인 자유언론(自由言論)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抑壓)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宣言)한다.

우리는 교회(敎會)와 대학(大學)등 언론계(言論界) 밖에서 언론의 자유회복(回復)이 주장되고 언론인의 각성(覺醒)이 촉구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뼈아픈 부끄러움을 느낀다.

본질적으로 자유언론(自由言論)은 바로 우리 언론종사자들 자신의 실천(實踐)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許容)하거나 국민대중(國民大衆)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언론(自由言論)에 역행(逆行)하는 어떠한 압력(壓力)에도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사회(自由民主社會) 존립(存立)의 기본요건(要件)인 자유언론(自由言論) 실천(實踐)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宣言)하며 우리의 뜨거운 심장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決議)한다.

1. 신문(新聞), 방송(放送), 잡지(雜誌)에 대한 어떠한 외부간섭도 우리의 일치(一致)된 단결(團結)로 강력히 배제(排除)한다.
1. 기관원(機關員)의 출입(出入)을 엄격히 거부(拒否)한다.
1. 언론인(言論人)의 불법연행(不法連行)을 일절 거부한다. 만약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불법연행(不法連行)이 자행되는 경우 그가 귀사(歸社)할 때 까지 퇴근하지 않기로 한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사 기자 일동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언론자유와 정론직필을 향한 투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 언론사의 기념비적 투쟁인 자유언론실천선언이 벌써 47주년 기념일을 맞게 됐습니다.

자유언론실천선언은 한시적 저항이 아니라 권력의 폭압과 사주의 통제를 뚫고 모아낸 선배님들의 '자유언론' 함성이 어둠에 갇혀 있던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뒤틀린 민주주의에 균열을 낸 일대사건이었습니다.

온갖 불이익과 희생을 마다하지않고 두려움에 맞서며 언론인의 자존과 소명을 포기하지 않은 선배님들의 발자국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언론계 민주노조 운동으로, 또 강력한 산별인 전국언론노동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유언론실천선언'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언론운동의 선구자들이 바친 열정과 노력을 빼고는 피흘린 민주화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으며,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저항의 정신으로 우리들은 언론자유 침탈과 민주주의 훼손의 위기마다 몸을 던져 싸워왔습니다.
이제 자유언론실천선언이 남긴 발자국과 정신은 명실상부하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끊임없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정보의 홍수 속에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공고히 하고 무너진 시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또한 정치권력의 언론장악 시도를 막을 제도 개선, 극심한 진영논리와 확증편향을 강화하는 미디어 시장의 재편을 서둘러야 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남발하며 진실추적을 겁박하는 '군중검열'로부터도 언론의 본령을 사수해야 합니다.

어지럽게 변화하는 언론 미디어 환경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이 세상을 흔든 그 때 그 시절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독립되고 자유로운 언론을 소망하며, 부러질 지 언정 꺾일 수 없다는 정론직필의 가치, 자유언론실천선언이 가리키는 언론개혁의 정방향은 변함없이 유효하며 더욱더 소중해졌다는 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정답인지 모를 혼돈의 시대, 우리가 지향해온 진보의 가치가 오염되고 조롱 당하는 현실 속에 선배님들이 밝힌 언론자유의 등불은 후배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침반을 따라 가야 결국 우리는 도도한 강물처럼 흘러 자유와 평등, 진짜 진보가 숨쉬는 미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의 가슴마다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두근대는 박동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중동 적폐언론 청산의 촛불을 들자

전 세계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인하는 추세다. 바야흐로 민족사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 새로운 선진 세상에 들어서면서 우리 내부의 일부 치부를 혹시 남들이 눈치채지 않을까 신경이 쓰인다. 가장 심각한 치부는 곪아터진 언론의 환부다. K방역 K팝 K영화 K제품 등을 통해 온 겨레가 힘겹게 쌓아올린 국가 이미지를 흉물스런 K저널리즘이 많이 갉아먹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 최고인데 비해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OECD 최하위권이다.

일부 적폐언론인들을 지칭하는'기레기'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언론의 타락상을 극적으로 웅변한다. '도둑'이라는 낱말이 '놈'자와 잘 결합하듯이 '기자'에 '쓰레기'를 붙여도 어색한 느낌이 전혀 없다. 지난 10여년간 이 신종 감염병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다. 우리는 바야흐로 '기레기병'의 팬데믹시대에 살고 있다.'위드 기레기병' 사회가 '위드 코로나' 세상을 앞질러 찾아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도를 지키며 성실하게 취재 보도하는 기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조선 중앙 동아 등 소수의 극심한 사이비언론인들의 분탕질로 인해 마치 기자들 전체가 기레기인 듯한 착시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처참한 시대에 언론현장에서 고뇌하는 후배 언론인들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 언론계 안팎의'기레기균'방역장치들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들은 받아쓰기 베끼기 비틀기 뒤집기 악의적 제목달기 등 현란한'글기술'을 신들린 듯 구사한다. 조작기사 가짜뉴스의 대량생산체제는 높은 가동율을 자랑한다.

한편으로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다는 언론인 비리 관련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에는 조선일보 사주일가의 부동산이 2조 5천억에 달한다는 김의겸의원의 조사내용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오랜 세월 정부의 투기정책과 다주택보유 공직자들을 두들겨 패는데 한점 망설임이 없었다. 최근에는 유가지 부수를 부풀려 광고단가와 정부보조금을 불법으로 챙긴 신문사들의 해묵은 사기행각이 발각되기도 했다. 언론적폐의 천태만상 앞에 그저 어안이 벙벙해질 뿐이다. 언론윤리 위반을 넘어 범죄의 영역에 접어든 만행들도 한둘이 아니다. 이 적폐의 공간이야말로 '기레기균'의 아늑한 보금자리다.

'기레기'가 국어사전에 실리고 초중고 교과서에 등장할 날이 빨리 다가올지도 모른다. 훗날 손자들은 물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왜 하필 그런 더러운 직업에 몸담았어요?" 상상만 해도 두 볼이 화끈거린다.

웬만한 철면피가 아니고는 언론 대수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부인하지 못한다. 언론이 제자리로 가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언론계 자체의 대대적 정화운동이다. 기레기와 적폐를 털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언론계 내부의 뼈를 깍는 자정운동을 회피하면서, 언론계 밖에서 추진되는 언론바로잡기 움직임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

우리는 최근 언론정도를 걷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다수 현역 언론인들의 노력에 주목한다. 특히 지난 9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협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 5개단체의 공동성명 중 '언론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대목에 유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짜뉴스 피해보상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개혁의 작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이 최소한의 처방마저 배척하는 세력의 핵심적 반대이유는 놀랍게도 '언론자유의 위축'이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언론탄압 앞에서는 끽소리도 못한 채 오히려 그 억압권

력에 부역하거나 동조, 찬양했던 세력이 지금 와서 '언론자유'를 입에 올리다니 정말 소가 웃을 일이다. 그 시절 자유언론투쟁에 나섰다가 무참히 짓밟힌 희생자들이 아직 노안을 부릅뜨고 응시중이다.

이해타산 때문에 국회의 시도는 무위로 끝날 공산이 크다. 제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된 언론계의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 일은 결국 촛불을 든 시민의 손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쓰레기의 악취를 참는 시민들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많은 징후들이 언론적폐청산의 마지막 결전이 임박했음을 알린다.

10.24자유언론실천선언 47주년을 맞이한 여든 살 안팎의 동아투위위원들은 그 결전의 대열 가장자리에 모여 촛불 하나씩 밝히기로 다짐한다. 우리 모두의 손자 손녀들은 코로나도 기레기도 없는 청정한 삶터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2021년 10월 22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2부

제27회 통일언론상

통일언론상 심사평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 역대 수상자(작) 명단

제27회 통일언론상 심사경위

제27회 통일언론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_
정일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심사위원

_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_
유재우
언론노조 부위원장

_
이미지
언론노조 특임부위원장

_
김종일 SBS PD

_
정성욱 EBS PD

_
박준범
YTN 라디오 PD

_
권혁철 한겨레 기자

_
정홍규 KBS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3개 현업단체는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보도·제작준칙'을 제시했습니다. 해방과 분단 50년을 맞아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통일언론으로 거듭나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3개 현업단체는 이와 함께 '통일언론상'을 제정했습니다.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 보도·제작준칙의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언론인·언론사와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한 사회단체나 언론인 등에게 주는 상입니다.

통일언론상은 보도·제작준칙을 만든 1995년부터 시상해 왔습니다. 어느덧 연륜이 쌓여 올해 스물일곱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제27회 통일언론상에는 모두 12개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여느 해보다 인쇄매체 출품작이 많았고 종국에는 인쇄매체가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동안 방송매체가 대상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해 온 데 비춰보면 아주 특이한 사례입니다. 방송매체 쪽에서도 독립매체가 독자적으로, 또는 제도권 언론사와 협업을 통해 만든 것을 출품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12개 출품작이 대체적으로 내용이 신선하고, 완성도 또한 뛰어난 수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심사에서 우선 6편을 추려내고 이어 2차 심사 끝에 대상과 특별상을 선정했습니다.

대상은 뉴스1에서 출품한 <시선의 확장>입니다. 한 달에 2~3편씩 모두 32편으로 이뤄진 장기 기획보도물입니다. 그동안 국내 언론계에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일본 내 조선학교 문제, 그리고 조선(북한)의 건축문화, 과학기술, 산업미술·건축장식·의상미술 등 디자인 동향으로 시선을 확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주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기자가 직접 취재 보도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특별상은 독립매체 나누크에서 출품한 <'산 자여 따르라! 백기완'>과 CBS의 <한반도건강공동체 '생명잇다'> 등 두 편입니다. 이 두 편은 같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백기완 선생은 민중운동가이자 통일운동가로서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족적은 누군가는 기록했어야 할, 그래서 후세가 기억하고 따라 배워야 할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KBS와 뉴스타파가 공동기획하고 독립매체 나누크가 다듬어서 3자 협력 인물 다큐멘터리를 내놓았습니다.

<한반도건강공동체 '생명잇다'>는 정치 군사 경제 분야에 매몰돼 있는 현 남북관계 보도 실태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해 보는 참신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남북의 청년 의료인이 출연해 남북 의료보건 체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 간극을 좁혀 보려는 시도를 한 점이 좋게 보였습니다.

경기일보에서 출품한 <67년 만에 주소 찾은 판문점, 이젠 남북평화관광이다>와 뉴스타파의 <김일성 왈가왈부 '그 법'의 7조>, 보다미디어그룹의 <감격과 냉정 사이 - 1989년 베를린과 오늘의 서울>도 수상 자격이 있는 수작이었지만 근소한 차이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일성 왈가왈부 '그 법'의 7조>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짐작하시다시피 '그 법'은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는 '찬양·고무 등'에 대한 조항으로서, 달리 말하면 언론자유의 기본 중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항입니다. 이 작품이 국보법과 언론자유

를 정면으로 다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마침 언론 현업 5단체(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가 지난 18일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힌 점을 상기하면서 이만 심사평을 마치겠습니다.

제27회 통일언론상

대상

—

뉴스1 / 서재준, 양은하, 이설

<기획연재> '시선의 확장'

특별상

—

CBS / 이형준

한반도건강공동체 '생명잇다'

특별상

—

김성진, 박정남, 권오정, 박훈규 독립PD

<KBS 뉴스타파 공동기획> '산자여 따르라! 백기완'

"시선의 확장"

서재준

양은하

이설

사실 <시선의 확장>이 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획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조금 더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출품했는데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낯설고 긴 기획에 함께 했고, 하고 계신 필진들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 <시선의 확장>의 성공의 절반, 어쩌면 그 이상은 이분들 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북한의 무엇이 군사분계선 너머에 있을 것이고, 아직 언론이 담아내지 못하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저희가 전해온 시선을 조금은 더 확장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 용기의 무게를 함께 지고 가야 할 북한팀원들에게도 미리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건강공동체 "건강잇다"

이형준

<한반도건강공동체 '생명잇다'>는 건강한 한반도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협력의 길을 모색한 CBS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함께 살아갑니다. 같은 하늘 아래, 물과 공기 등 자연을 공유하는 남과 북은 생명을 서로 잇대어 살아갑니다. 다큐멘터리 '생명잇다'는 생명이 있는 땅, 한반도 그리고 그 땅에서 생명을 잇댄 남과 북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이야기 합니다.

잇대어 살아가는 한반도의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고민들은 그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다만 의료계 등 전문 영역 안에서만 이야기 되다보니 일반 대중들은 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생명을 지키는 일'은 누구나 알아야 하고 또 공감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의 기획은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 중이었습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꾸준히 애써온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남북 보건의료 실태와 협력의 필요성을 어떻게 하면 더 손쉽게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착수 시점에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팬데믹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급작스런 감염병의 위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국내외 상황은 다큐멘터리의 제작도 멈추게 했습니다. 모든 걸 스톱해야 했던 상황은 다시금 찬찬히 전체적인 내용들과 다뤄야할 핵심들을 차분히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감염병의 위기 속에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데에 최적의 상황이 된 역설적인 기회가 됐습니다.

하늘 길도 막히고, 국내 촬영도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됐지만 더 미룰 수

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상황은 갈수록 불안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작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등의 수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취지에 공감하며 기꺼이 출연에 임한 북한이탈청년들과 의료분야에 몸담은 남한의 청년들은 통일에 무관심한 요즘 젊은 세대들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다음세대가 이뤄낼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교갑약', '단물약' 등 같은 민족인 우리가 같은 말을 쓰면서도 보건의료 용어에 있어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가 대화하고 이해하는 일이 필요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북한은 '낙후되었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긍정적인 치료 모델을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을 통해 개발하고 힘을 모은다면 전 세계 인류들의 건강과 행복에도 기여하는 그런 날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한반도는 70년 된 중환자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지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환자는 맥박이 고동치며 다시 회복할 여지를 보여줬습니다.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해서 중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보건의료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통일이 가져올 상생, 공생의 시너지들을 우리가 더 고민하고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관련된 수많은 기사와 논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공부했습니다.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배웠고 협력이 왜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되도록 쉽게 남북 보건의료의 현실

과 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길 바라며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보여준 것처럼 너의 문제가 남의 문제만이 아니듯 남북 보건의료 분야는 공존하는 한반도에서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님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통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 생각한다는 다음세대에게 이념이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건강한 땅에서 살기 위한 끊어진 '생명의 끈'을 잇는 가교의 구실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 협력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에도 남북의 교류와 협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이번 통일언론상 특별상 수상이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생명이 잇대어 있는 한반도에서 생명이 살아 숨 쉬고 건강한 한반도의 모델이 전 세계에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애쓰는 많은 보건의료 관계자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다큐멘터리는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첫 걸음은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방대한 양을 제한된 시간 안에 담느라 못 다한 이야기가 많기에, 기회가 된다면 제이 제삼의 '생명잇다' 시리즈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다큐멘터리가 앞으로 계속될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자여 따르라! 백기완"

김성진

박성진
권오정
박훈규

안녕하십니까. 독립피디 김성진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고 큰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백기완 선생님을 처음 찾아뵌 것은 지난 2017년 6월이었습니다. 평생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고,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했던 백기완 선생님이었지만 선생이 일평생 헌신한 통일운동, 민주화운동을 제대로 조명한 다큐멘터리는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좀처럼 언론사 촬영을 허락치 않았던 선생님이었기에, 선생의 일생을 영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다른 통일운동이라는 점을 역설했고 흔쾌히 저희 카메라 앞에 앉으셨습니다.

당시에도 건강이 예전만 못해서인지 1시간 이상 인터뷰 진행이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했고 눈빛은 매섭고 날카로웠습니다. 헝클어진 하얀 백발의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해방 이후 10대 시절부터 민중과 함께 했던 선생의 삶을 차곡차곡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60일 동안 빠짐없이 기록한 백기완 선생님의 인터뷰 촬영 분량은 1,789분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이 소장해 온 귀한 사진과 자필 기록물, 그림, 저서 등 백기완 선생님에 관한 기록을 총 망라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백기완 선생이 걸어왔던 삶의 궤적과 민주화, 통일운동의 이력을 가감 없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기완 선생님이 일생에 단 한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것이 바로 2부작 다큐멘터리 <불쌈꾼 백기완>이었으며 이는 독립언

론 뉴스타파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불쌈꾼이라는 말은 백기완 선생이 발굴한 혁명가라는 뜻의 순 우리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백기완 선생이 별세한 직후 <불쌈꾼 백기완>을 기반으로 KBS에서 <산자여 따르라>라는 백기완 추모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KBS와 뉴스타파가 공감대를 갖고 공동기획을 추진하게 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저희 팀이 제작을 맡았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언론, 독립피디 3자의 조합은 최초의 시도였으며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KBS를 통해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번 다큐멘터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큰 힘 돼주신 KBS 서용하 팀장님과 조정훈피디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항상 저희 제작팀에 변함없는 응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님과 그 구성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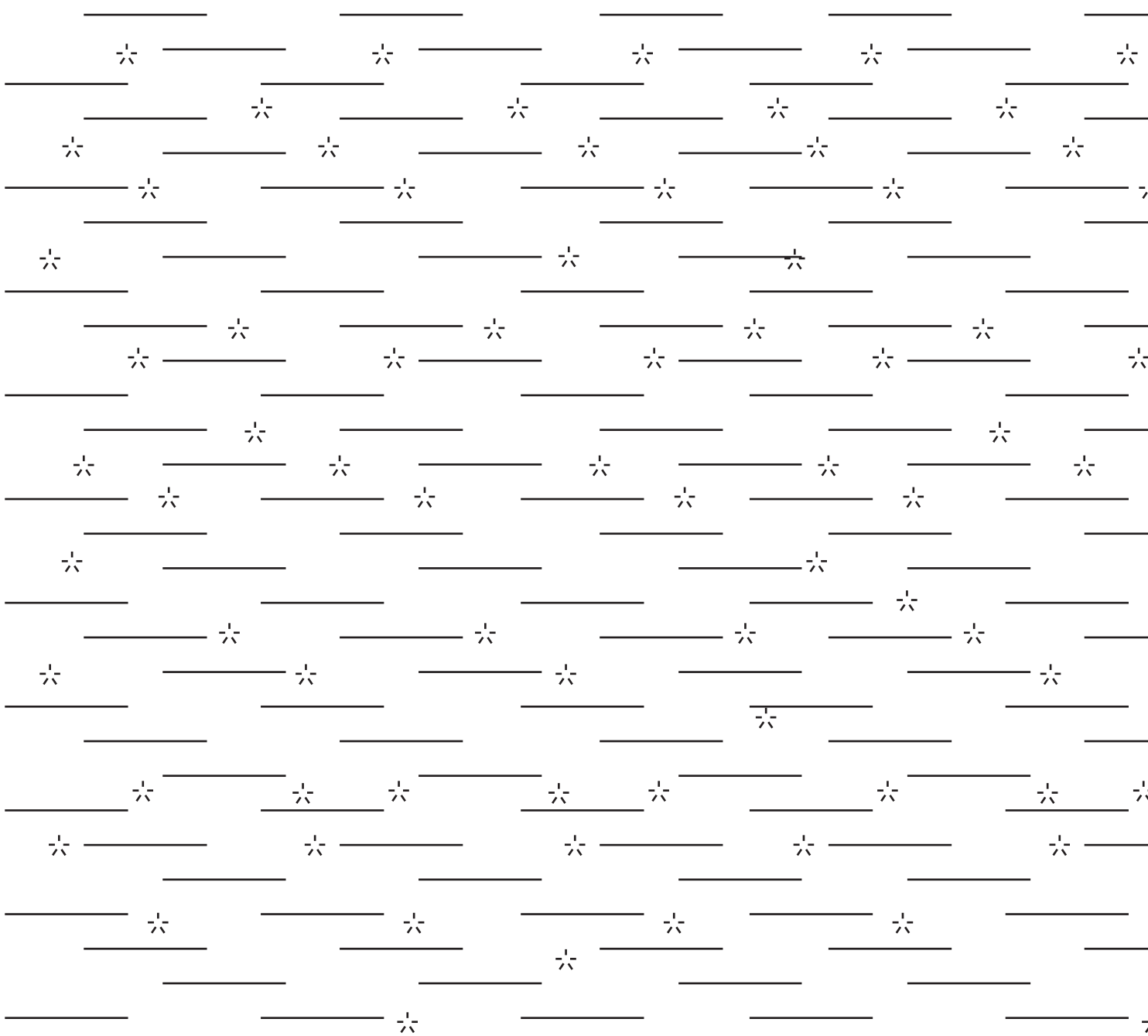
무엇보다 이런 작업이 가능했던 건 오랜 기간 같이 한 팀 동료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부터 완성까지 함께 한 박정남피디, 권오정피디, 정재홍 작가님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 큰 도움을 준 길바닥저널리스트와 배소윤 작가님과 함께 이번 수상의 영광을 나누겠습니다.

백기완 선생이 1967년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는 대한민국 통일운동의 선봉이자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었습니다. 현재에도 백기완 선생의 뜻을 후대에 잇고자 고군분투 중이신 통일문제연구소 구원성분들 특히 채원히 선생님께 이번 통일언론상 특별상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 대상 CBS '통일로 가는 길' 제작진
제2회> 대상 정길화·김환균(MBC 'PD수첩' PD) / 정연주(한겨레신문사 기자, 워싱턴특파원)
제3회> 대상 한겨레신문 '아 굶주리는 북녘' 특별취재팀
특별상 정수웅(다큐서울 PD) / 박창순·류현위(EBS '통일로 가는 길' PD)
제4회> 대상 정일용(연합통신 남북관계부 기자) -'안기부, 북한 원전 인용보도 문제 많다'
특별상 권문혁·김영호·이용식(MBC 'PD수첩' PD)
제5회> 대상 안택호·김환균(MBC PD) '특사, 그래도 남은 문제'
특별상 손석춘(한겨레 여론매체부장) - 손석춘의 여론읽기 한겨레신문 칼럼 '한국 언론운동의 논리' 저서
박휘서(KBS PD) - '특별생방송 남과 북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제6회> 대상 최영준·이광조·김용신(CBS PD) - '2000년 남북평화 만들기'
특별상 이채훈(MBC PD) - 'MBC특별기획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5편 여수 14연대 반란'
제7회> 대상 김남태(여수MBC PD) - '아직도 못 다 부른 노래'
특별상 강지웅(MBC PD) -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푸에블로 나포사건, 전향공작과 양심의 자유'
이광조·박철(CBS PD) - '함께 사는 연습'
제8회> 대상 방성근·최원석·임정아(MBC TV제작2국 PD) - '2002 평양특별공연'
특별상 한민수외 8인(국민일보 사회부 사건팀) - '한국전쟁당시 한국군인 및 경찰의 민간인 학살'
문영식 외(연합뉴스 민족뉴스 취재본부) - '북한어휘사전·북한연감·기타간행물'
제9회> 대상 이채훈·김상균·배연규·이선태 (MBC PD) - MBC 정전50주년 특별기획 '끝나지 않은 전쟁'
특별상 송정록(강원도민일보 기자) -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남북강원교류'
이욱정(KBS PD) -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국방비 증액, 군축은 불가능한가'
제10회> 대상 EBS 오한샘·성기호·김동렬 PD - '코리아 코리아'
특별상 MBC 유현 차장 - '1994년 그 해 여름 조문파동과 공안정국'
여수MBC 김남태 부장 - 여수MBC 창사34주년 라디오 특집 다튜멘터리 '가슴속에 묻은 노래 山洞哀歌'
제11회> 대상 SBS 제작본부 박기홍 PD - '나는 가요 - 도쿄, 제2학교의 여름'
특별상 SBS 제작본부 오기현 PD - '조용필 평양에서 부른 꿈의 아리랑'
제12회> 대상 KBS 공영철 PD - 'KBS스페셜-현지르포 2006 북한, 중국 자본에 종속되는가'
특별상 마산MBC 김 현 보도국 기자 - 특집 다큐멘터리 '윤이상, 하늘에 새긴 선율'
제13회> 대상 KBS 나상엽 PD·장영복 조선중앙방송 연출가 '사육신'
제14회> 대상 진주MBC 심길보 PD - 진주MBC 창사 40주년 특별기획 HD다큐멘터리 '빨치산' 2부작
특별상 KBS 윤성도 PD - KBS스페셜 2008 북한 식량위기 '굶주림의 정치경제학'
제15회> 대상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한겨레 기획 연재물 '냉전의 추억'
제16회> 대상 EBS 김한중 PD - 지식채널e '통일합시다, 저는 북한사람입니다. 아주 오래된 소원, 고무신'

제17회> 대상 해당작 없음
특별상 한겨레신문 송경화 기자 - '탈북자의 아메리칸 드림' 4부작
KBS제주 강인창 PD - '4·3 의인 김익렬'
제18회> 대상 해당작 없음
특별상 EBS 다큐프라임 - '탈북, 그 후'
제19회> 대상 KBS 남진현 PD -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
특별상 CBS 오현숙 PD - '정전 60년 남북공존의 길을 찾아서' 2부작
전병역·손제민·송윤경·심혜리 경향신문 기자 -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9부작
제20회> 대상 뉴스타파 최승호PD, 정유신·오대양·최형석 - '국정원 간첩조작 연속보도'
특별상 오마이뉴스 신은미 기자 - '재미동포 아줌마, 또 북한에 가다'
제21회> 대상 해당작 없음
특별상 제주MBC 김지은 PD 특집다큐 -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EBS이상범 PD - '통일채널e'6부작
제22회> 대상 뉴스타파 박정남 독립PD - '목격자들-개성공단' (2부작)
특별상 EBS 정성욱 김병완 김성목PD 이혜진 방송작가 - '딱 좋은 친구들'
울산MBC 이영훈 PD '돌직구40 - 신불산 삘치산을 말하다'
제23회> 대상 KBS 양승동·최진영 PD - 'KBS스페셜 오래된 기억, 6.15남북정상회담'
특별상 SBS 배정훈 PD - '그것이 알고싶다 도둑골의 붉은 유령'
제24회> 대상 SBS 오기현·이윤민 PD 'SBS스페셜 - 84년생 김정은과 장마당세대'
특별상 내일신문 김기수·김상범·정재철 기자 -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20회 연속 기획'
KBS 구상모 PD 'KBS 특별다큐멘터리 - 우리가 태어난 곳'
제25회> 대상 KBS 유재우 PD 'KBS스페셜 - 어느 편이냐 묻는 당신에게'
특별상 G1강원민방 김태정 조민경 PD -'DMZ스토리'
제26회> 대상 SBS 김종일 남북교류협력단 부장, 풀끼리프로덕션 최정호 대표, 서재호 PD - '샘 해밍턴의 페이스北'
특별상 6.15 공동선언 남측위 언론노보 고승우 정책위원장 -'한반도 관련 보도물'
특별상 제이원더 남택진 PD, 이진성 PD, 윤승희 송혜진 작가 - 웹드라마 '오늘도 일 없습니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3부

제33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안종필 자유언론상 심사평 | 시상 및 수상소감 발표 | 역대 수상자(작) 명단

제33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심사경위

제33회 안종필 자유언론상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장

_
안기석
새언론포럼 회장

심사위원

_
김동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부위원장

_
양한수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

_
유숙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_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_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_
박강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상임이사

이번 제33회 안종필 자유언론상으로 추천된 후보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검증 관련 등 다양한 특종 보도를 한 JTBC탐사팀(이윤석, 전다빈, 강희연, 어환희, 하혜빈, 이화영), 한반도평화 관련 칼럼 등을 쓴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탐사보도전문기자인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일본우익들의 행태를 고발한 영화 '표적'을 제작한 니시지마 신지(西嶋眞司) 감독, '5.18 북한군 개입설'의 허구를 파헤친 JTBC 기자들(봉지욱, 채승기, 라정주, 송우영), 노동 주거 문제를 심층보도한 경인일보 기자들(배재홍, 손성배) 등으로 모두 6건이었습니다.

추천 받은 후보자들은 모두 우리 사회의 숨겨진 진실을 알리거나 가짜뉴스의 허구를 밝히거나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치열하게 노력한 분들이었습니다. 건강한 언론 지형을 만드는 데 모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그 중에 니시지마 신지 감독과 JTBC 기자들 등 두 후보를 놓고 심도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뉴스의 거짓을 끈질진 취재 끝에 밝힌 JTBC 기자들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 니시지마 신지 감독에게는 본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상을 수상한 니시지마 신지 감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일본에서 보도했다가 온갖 탄압과 불이익을 받은 우에무라 다카시 기자의 법정투쟁과 활동, 그리고 우에무라 기자를 공격한 우익들의 행태를 고발한 영화 '표적'을 제작함으로써 국경을 넘어서는 진실 보도와 자유언론 실천에 앞장선 용기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니시지마 감독은 우에무라 기자가 겪는 고통에 의분을 느껴 다큐영화로 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결국 2018년 정년 4년을 남겨두고 RKB마이니치(毎日)방송에 사표를 내고 다큐영화 제작에 나섰고 제작비와 생계

문제 등 어려운 난관을 뚫고 '표적'을 2021년 9월에 완성하여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했습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JTBC 기자들은 심층기획보도 '5.18북한특수군 김명국 추적 보도'(16편)를 통해 가짜뉴스로 숱한 논란을 일으키며 사라지지 않던 5.18 북한군 개입설을 종식시킨 공로를 평가했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의 핵심 증인으로 알려진 김명국은 2013년 방송 등장 이후 베일에 가려졌지만 8년만에 JTBC에 나타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 세력을 고발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JTBC 기자들이 석 달에 걸친 추적과 끈질긴 취재로 이런 사실이 역사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언론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는 올바른 언론개혁의 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격론과 협의를 거듭했습니다. 현역 언론인들은 자발적인 자정기구를 만들기로 약속했고 여야는 연말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것이며 언론인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국민은 알 권리를 언론에 위임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을 밝혀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건강한 언론 지형을 만들어내려는 언론인들의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종필 자유언론상에 후보로 추천된 분들과 수상한 분들이 자유언론실천의 선봉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상자들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유언론실천의 정신과 저널리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후보로 추천받은 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언론자유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인으로 계속 활동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표적”

니시지마 신지

이번에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수상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아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수상은 거듭되는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던 전 아사히신문 기자 우에무라 다카시 씨와 우에무라 씨를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일본의 저널리즘을 지키기 위해 일떠선 수많은 시민과 변호사 분들의 용기가 높이 평가된 것이라고 봅니다. “용기”라는 말을 쓴 것은 싸움을 건 상대의 뒤에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표적”은 위안부에 관한 기사를 쓴 우에무라 씨가 “날조기자”라는 비난을 받아, 그 오명을 씻기 위한 싸움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입니다. 우에무라 씨를 공격한 사람들은 일본의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 받은 우익 세력입니다. 우에무라 씨가 기사를 쓴 것은 1991년 8월입니다. 그때 저도 방송국의 서울특파원으로서,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에무라 씨의 기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써서 일본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저는 날조 기자라는 공격을 받지 않은 것인가, 어째서 우에무라 씨만 “날조기자”라는 공격을 받는 것인가. 거기에는 특정의 미디어를 표적으로 한 국가적인 음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본의 현실을 영화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영화를 제작하는데 약 4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몇 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나눔의 집에서는 전 위안부의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파원 시대에 저는 전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김 할머니의 목소리는 지금 일본에서 방송을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 보도가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국가권력이 권력에 불편한 기사를 쓰는 미디어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때때로 역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자신들의 편에 맞게 고쳐 쓰려고 합니다. 신문기자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내용을 기사로 하면, 기자는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지금 일본의 현실입니다. '올바른 역사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 시키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사회는 매우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결코 위축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미디어 관계자가 이런 권위있는 상을 받게 된 것은, 일본 언론계에도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역사수정주의에 반대를 하고 올바른 역사를 국민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언론인이 있다는 것을 평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치적 대립은 지속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언론계가 서로 좋은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함께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 두 나라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올바른 언론을 통해 한일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18 북한특수군 김명국 추적보고'

봉지욱

채승기

라정주

송우영

<1974 자유언론실천선언 中>
우리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처한 미증유(未曾有)의 난국(難局)을 극복(克服)할 수 있는 길이 언론(言論)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宣言)한다.

이젠 때로 자유가 흘러 넘쳐 탈입니다. 2013년 TV조선과 채널A의 5·18 북한군 개입설 보도가 그랬습니다. 큰 사회적 혼란을 불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초엔 한 대학교수가 강단에서 북 개입설을 강의했습니다. 지만원의 주장이 맞단 겁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 5·18 공청회는 더욱 가관입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공론의 장에서 '북 개입설'과 '폭동'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좀비 같은 망언의 뿌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기엔 바로 '김명국'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언론도 만나지 못한 북한특수군 김명국. 전방위로 수소문한 끝에 단 한 장의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그렇게 경기도 분당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천신만고란 단어가 온몸으로 느껴지긴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내가 5·18 때 광주에 간 북한군이란 건 사실이라니까요!".
그의 주장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탈북 작가 이주성이 그의 말을 토대로 썼다는 논픽션 실화 '보랏빛 호수'와는 곳곳의 디테일이 달랐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있다! 촉촉한 촉이 발동한 순간입니다.

"아, 좀 오지 말라니까요. 좀, 글쎄".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서 또 왔죠. 그럼 제가 여기 다신 안 올 테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주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10여 초 후 더듬거리며 나온 개미 목소리. "안…안 갔어요".

세 번째 만남 끝에 김명국의 자백이 시작됐습니다. 본명은 정명운. 1980년엔 19살이었습니다. 대남 간첩을 후방 지원하는 대남연락소 2처 소속 전투원. 훈련 중 다리 부상을 입어 5·18 기간 중엔 광주가 아닌, 평양 군인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가 아닌 평양이라니!

며칠 후 JTBC를 찾아 온 정명운. 먼저 광주 시민께 사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합니다. 2013년, 자신이 채널A 방송에 등장한 이유, 2009~2010년 세 차례 국정원 조사를 받았던 일, 돈을 줄 테니 기자회견을 하자고 유혹한 세력에 대한 존재 등 상상 이상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보도 후 온라인을 떠돌던 '5·18 북 개입설' 관련 가짜 뉴스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나름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47년 전, 선배들이 써 내려간 선언문을 다시 살펴봅니다.

<1974 자유언론실천선언 中>
본질적으로 자유언론(自由言論)은 바로 우리 언론종사자들 자신의 실천(實踐)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許容)하거나 국민대중(國民大衆)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결국 언론 자유의 답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제 1회> 본상 김주언 한국일보 기자 - '보도지침' 폭로
제 2회> 본상 부산일보 노조 - 편집권 독립운동
제 3회> 본상 권영길 언론노련 위원장 - 언론노조운동 주도
제 4회> 본상 김중배 동아일보 편집국장 - 편집권 독립 주장
제 5회> 본상 MBC노동조합 - 공정방송 쟁취 50일 파업
제 6회> 본상 한겨레신문 편집국 - 국민주신문 창간과 정론직필
제 7회> 본상 충청일보 편집국 - 언론 공기능 수호
제 8회> 본상 최문순 전 MBC노조위원장 - MBC의 민주화 위한 노조 활동
제 9회> 수상자 없음
제10회> 본상 홍건표 전 AP통신 서울특파원 · 정호상 전 아사히신문 서울특파원 · 심재훈 전 뉴욕타임스 서울특파원 · Don Oberdorfer 전 워싱턴포스트 서울특파원 - 1974~1975년 한국의 자유언론운동을 적극적으로 취재보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림
제11회> 본상 바른지역언론연대 - 풀뿌리 지역신문 활성화를 통해 언론민주화에 기여
제12회> 본상 KBS '추적60분'제작팀(1999년 10월 ~ 2000년 10월) -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과 이슈를 시사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날카롭게 파헤침
제13회> 본상 MBC '미디어비평'팀(2001년 4월 ~ 2001년 9월) - 언론계의 현안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다룸으로써 언론민주화에 기여함
제14회> 본상 유상하 · 김재용(MBC 보도국 사회1부 기자) - MBC 9시 뉴스데스크의 서해교전 관련 보도
특별상 한민수 외 8인(국민일보 사회부 사건 팀) -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과 군사정권 의문사
제15회> 본상 KBS '한국사회를 말한다'팀 황용호 외 15인(KBS) - <심판받지 않는 권력, 대법원>,<정치자금, 판도라의 상자> <일제하 민족언론을 해부한다>, <최후의 망명객들>, <국가보안법> 등
제16회> 본상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특별상 정길화, 김영호, 김환균, 박정근, 유 현, 이채훈, 장형원, 한학수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17회> 본상 손석춘(언론인), 특별상 : 민족문제연구소
제18회> 본상 시사저널 기자 일동
제19회> 본상 KBS 미디어포커스 팀
특별상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제20회> 본상 경향신문 편집국
특별상 YTN노동조합 / 아프리카
제21회> 본상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특별상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제22회> 본상 MBC "4대강, 수심 6m의 비밀" 제작팀
제23회> 본상 시사주간지 <시사IN> 편집국
제24회> 본상 탐사저널리즘 <뉴스타파> 제작진
제25회> 본상 한겨레신문 정환봉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연속 단독보도>
특별상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제26회> 본상 한국방송(KBS) 보도본부 인사검증 TF - 김귀수, 이병도, 정수영, 김연주, 홍성희 기자
제27회> 본상 미디어오늘
제28회> 본상 뉴스타파 '훈장과 권력' 제작팀
특별상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

제29회> 본상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특별상 이용마 MBC 해직기자, 김민식 MBC PD
제30회> 본상 MBC 〈PD수첩〉 조계종 2부작, "큰 스님께 묻습니다", 강지웅 부장, 박건식, 한학수, 강효임 PD, 정재홍 작가
특별상 박진수 전 언론노조 YTN 지부장
제31회> 본상 KBS <저널리즘 토크쇼 J> 제작진(제작 : 김양순, 연출 : 은준수 송수진 신지원, 취재 : 최경영 김빛이라 김덕훈 등)
특별상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제32회> 본상 김이택 〈한겨레〉 대기자
특별상 <뉴스타파> '국회 세금 도둑' 제작팀(박중석, 최윤원, 임선응, 연다혜, 강현석, 신영철, 이상찬, 정형민 등),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

평화통일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보도·제작준칙

전문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보도•제작에서 화해와 신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 이 같은 반성 위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및 한국PD연합회 등 언론3단체는 1995년 8월15일,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아 우리 언론이 통일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으로 공동의 보도•제작 규범을 제시했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정신에 따라 먼저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힘쓰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단결하여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또한 분단과 전쟁을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약속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실현과 이행을 위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가꾸어나가는 데 노력한다.

총강

1. 우리는 대한민국(약칭 '남측')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북측')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2. 우리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제작함으로서 남북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3.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

애를 타파한다.

4. 우리는 남과 북의 우수한 민족 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5.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보도실천요강

1. 남북 긴장해소 노력 : 남북 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군비증강 등 제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남북 간 긴장 및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2. 인물 호칭•직책 존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물에 대한 호칭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명 다음에 직책을 붙여 호칭한다.
3. 관급자료 보도 유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관급 보도자료의 무절제한 인용•전재를 피하고 최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보도한다.
4. 내외통신 인용 책임 : 내외통신 자료는 관급보도 가운데 하나이므로 내외통신 자료를 전적으로 인용한 보도라 할지라도 그 책임은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5. 외신보도 신중 인용 : 외신을 활용한 특정세력의 목적성 여론조성을 경계하며, 제3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외신보도는 인용하지 않는다.
6. 1차 자료 적극 활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문•방송•통신 보도와 장비 등 1차 자료에서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7. 각종 추측보도 지양 : 국내외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원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사진•화면 사용 절제 : 해당기사와 무관한 자극적인 화면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으며, 냉전과 대결의 시각보다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노력한다.

9. 희화적인 소재 지양 : 남북 간 언어, 문화, 생활의 차이와 상호 이질감을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보도에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는다.
10. 망명자의 증언 취사 : 망명자의 증언은 그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사화 하도록 한다. 전언이나 추정 등을 기사화해야 할 경우는 '전언', '추정' 등을 명기한다.

제작실천요강

1. 정보제공 적극 편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프로그램 편성 시 형식적•소극적 편성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 드라마, 오락물 등 각 장르별로 적극 편성하며, 남북 관련 긴급 혹은 특집 프로그램 편성 시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특히 유의한다.
2. 통일지향 가치 추구 : 기획, 출연자 선정, 편집 등의 제작과정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 화해•공존공영의 증진, 통일의 촉진이 구현되도록 적극성을 갖고 제작에 임한다. 프로그램 제작 시 여러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인간존엄성 존중, 민족 이익 수호, 민족화해 증진 등의 가치를 판단의 우선가치로 삼는다.
3. 냉전시대 관행 탈피 : 냉전시대에 형성된 내면적 자기검열, 습관화된 분단의식, 누적된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냉전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요•가곡, 드라마, 영화 등의 방송을 피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상업•선정주의 경계 :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경계하며, 안일하고 편의적인 제작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아가 현재의 모든 방송행위가 미래의 통일민족문

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제작에 임한다.

5. 다원주의 가치 반영 : 사회적 가치나 의견 등의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할 때는 제작진이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청자가 듣고 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가감 없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6. 보도활용 제작 신중 : 국내외 매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십•콩트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보도의 정확성, 취재원의 신뢰도, 보도 이면에 게재되어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의도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방송하며, 무분별하게 인용하여 민족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화하지 않는다.
7. 생활 문화 적극 소개 :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는 남북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진정한 최종적 통일임을 인식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프로그램 소재로 적극 채택한다.
8. 능동적인 자료 접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시 정보의 편중성•부족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작진 스스로 노력한다. 1차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각 분야 연구자 등 폭넓은 인적자원 확보에 각자가 능동적으로 힘쓴다.
9. 남북 차이 이해 노력 : 언어, 문화, 생활, 관습, 가치관 등에서의 남북의 차이를 인정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이 차이를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도록 한다.
10. 남북 동질성의 부각 : 남북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부각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통일지향적 방향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쓴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명단

동아투위 위원 113인

강정문 권근술 김덕렴 김두식 김성균 김유주 김인한 김진홍 김창수 박노성
배동순 성유보 송재원 신양휴 신태성 심재택 안병섭 안상규 안성열 안종필
오정환 우승용 윤활식 이계익 이병주 이의직 이인철 조민기 조성숙 조양진
홍선주 홍종민 홍휘자 (이상 고인 33분)

강운구 고준환 국흥주 권도홍 권영자 김기경 김대은 김동현 김명걸 김민남
김병익 김순경 김양래 김언호 김영환 김욱한 김재관 김종철 김창선 김태진
김학천 남기재 맹경순 문영희 박경희 박순철 박종만 박지동 서권석 서창식
송경선 송관률 송준오 신영관 신정자 신해명 심정섭 양한수 오봉환 유영숙
윤석봉 윤성옥 이경자 이규만 이기중 이길범 이동운 이명순 이문양 이부영
이영록 이재민 이종대 이종덕 이종욱 李宗郁 이지선 이태호 이해성 임부섭
임수진 임응숙 임채정 임학권 장윤환 정동익 정연주 정영일 정흥렬 조강래
조영호 조학래 최남경 최학래 한현수 허 육 홍명진 황명걸 황윤미 황의방
(이상 80명)

명예위원 13인

故 천관우 위원(전 동아일보 주필)
故 송건호 위원(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故 제임스 시노트 신부(한국명 진필세)
故 백기완 선생
이해동 목사
함세웅 신부
홍건표(AP통신)
정호상(아사히 신문)
다메다 에이이찌로(아사히 신문)
오구리 게이따로(아사히 신문)
에자와 고지(교도 통신)
오노다 아끼히로(교도 통신)
후루노 요시마사(마이니찌 신문)
(이상 13명)